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통제소재와 학교적응의 구조분석

이 경 화[†] · 정 혜 영
([†] 부경대학교 · 대구미래대학)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Middle School Students' Stress, locus of control, and Adjustment

Kyeong-Hwa LEE[†] · Hye-Young JUNG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Daegu Mirae College
(Received October 23, 2006 / Accepted January 29, 2007)

Abstract

In order to define their relative influence, this study analyz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such related variables as locus of control and stress, including clarification of other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Participants were a sample of 331 students from 3 middle schools in Busan. Correlation,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nd model-fitness tests were applied to the data. Results indicated that stress on the school, home,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 has the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the locus of control has relatively low influence.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Locus of control, Stress, Middle school student

I. 서론

적응은 개체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다. 주어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의 삶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정서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 즉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문은식, 2002).

학교에서의 적응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수업에 대한 적응, 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학습분위기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적응과 관련있는 변인으로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Connell, Spencer, & Arber, 1995; Grolnick, Kurowski, & Gurland, 1999; Harter, 1996; Wentzel, 1997).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 연령,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관련변인으로 두고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김춘희, 2000; 이예승, 2004; 이우주, 2003; 이훈진, 1999; 임정순, 1993; 장호성, 1987; 차유립, 2001; 한미라, 1997; 황미정, 2004),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의 의사결정, 성취동기, 태도 변화의 예측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사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852, khlee@pknu.ac.kr

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개념 중 하나인 통제소재 (locus of control)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다.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강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대한 개념인 통제소재는 어떤 사건이든 자신의 행동결과로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보는 내적 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와 자기의 행동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외적 통제(external locus of control)로 분류된다(한상희, 1996). 통상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을 양극에 둔 한 연속선상에서 그 정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변화, 발달해간다고 볼 수 있다.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내적인 능력이나 노력에 있다고 지각하며,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이나 욕구좌절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가치관, 태도, 행동, 반응 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은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초등학생이 학업에서도 높은 성취를 나타내고(김병선, 1998; 김춘례, 1992; 변혜중, 1990; 정병철, 1993), 학교에서도 보다 잘 적응한다(김순덕, 2005; 권일현, 2002)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고문정(2002)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별로는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순으로 내적 통제성을 지닐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내적 통제성향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학교나 가정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기인되는 스트레스와의 관련해서 학교적응을 다루는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상황과 관련하여 학업문제 문제에서 비롯하여 학교교사와의 관계나 학교

의 환경, 이를테면 학교규모에 따른 교실 공간의 크기라든가 좌석의 배치 상태 등은 학생의 학교적응을 비롯한 여러 정서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강영자, 1996; 김길자, 2004; 김수주, 2001; 신현숙·구본용, 2000; 오미향·천성문, 1993; 이경희, 1995; 임규혁, 2001).

부모 및 가족문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겪는 스트레스 또한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으며(강영자, 1996; 박명재, 1993; 윤지순, 2002; 이경희, 1995),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일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부정적인 내면사회화가 이루어진다(김길자, 2004)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친구는 심리, 사회적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인관계로서 친구관계에서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며(Goswick & Jones, 1981;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청소년 자신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얼굴, 작은 키 등의 외모나 성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서윤경, 2003; 장휘숙, 1998). 이렇듯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을 가지며, 일상생활 속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과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 사건이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Compas, 1987). 스트레스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는 변인 즉, 완충자원으로 통제 소재가 제시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하영(1999), 박광수(2001)의 연구와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용자(1988), 백양희와 최외선(1997), Cole과 Sapp(1988), Johnson과 Sarason(1978)의 연구는

내적통제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거나 스트레스와 통제소재 간에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로는 통제소재와 같은 개인적 특성, 청소년의 환경으로부터 지각하게 되는 스트레스 등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 연구에서 통제소재와 학교적응의 관계,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통제소재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단순상관 및 집단간 차이검증의 통계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즉 학교적응 관련변인들을 독립적,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내에서의 상호적 관계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변인들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내적·외적 통제소재 성향과 환경적 차원에서의 학교, 가정, 대인관계,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생활, 친구, 교사, 수업, 학교환경에 대한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변인들 간 가설적 구조모형(<그림1> 참조)을 설정하여 인과적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통제소재, 스트레스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학교적응, 통제 소재, 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1학년 113명, 2학년 109명, 3학년 109명으로 총 348명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정한 가, 나, 다 급지 1개교씩을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학년별로 1학급씩 무선표집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각 검사, 내외통제소재 검사 및 학교적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2005년 11월 16일-11월 28일), 이 중 일부 응답이 누락된 대상을 제외한 총 331명이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중학생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현황

학교 구분	가	나	다	계(%)
성 남	52	57	60	169(51.1)
별 여	52	54	56	162(48.9)
학 1	34	40	39	113(34.2)
2	36	36	37	109(32.9)
년 3	34	35	40	109(32.9)
계(%)	104(31.4)	111(33.5)	116(35.0)	331(100)

2. 측정도구

본 검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재 나급지의 남녀공학 B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각 1개 학급씩 전체 7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적응 검사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7문항), 학교친구 적응(8문항), 학교교사 적응(9문항), 학교수업 적응(8문항), 학교환경 적응(9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김용래(2000)의 학교적응 검사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5단계 Likert형의 총 4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

적응의 하위요인별, 즉 학교생활적응(.70), 학교친구적응(.78), 학교교사적응(.91), 학교수업적응(.84), 학교환경적응(.90)의 신뢰도 계수 범위는 .70에서 .91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4로 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통제소재 검사

통제소재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검사도구는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내외 통제성 척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번역, 수정하여 제작한 정은주와 손진훈(1981)의 학생용 내외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거나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문항은 수정·삭제하였다. 총 26개로 재구성된 문항들은 지적이고 학업에 관련된 행동에 대한 신념, 일반적인 지각, 부모, 친구와 관련된 행동 강화 간의 일관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단계 Likert형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내적 통제소재가 .79, 외적 통제소재는 .71이었다.

다. 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리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네 개의 하위영역 즉,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학생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설문 결과를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 한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거나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문항은 수정 및 삭제하여 5단계 Likert형의 총 35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영역별, 즉 학교생활스트레스(.71), 가정생활스트레스(.78), 대인관계스트레스(.85), 자신스트레스(.80)의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71에서 .85이고,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9로 나타나 검사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

호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료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주요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측정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들(GFI, AGFI, NNFI, CFI, RMSEA)을 산출하였다. 최종모형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경로계수를 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 분석에는 Windows용 SPSS 12.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31)

잠재 변인	측정변인 (문항수)	평균	문항평균	표준편차
통제 소재	내적(14)	42.27	3.02	5.99
	외적(12)	24.82	2.07	5.18
스트레스	학교(8)	23.14	2.89	4.47
	가정(10)	19.20	1.92	6.49
	대인관계(9)	16.46	1.83	6.53
	자신(8)	19.61	2.45	6.34
	학교생활(7)	20.63	2.95	4.26
학교적응	친구(8)	24.18	3.02	5.39
	교사(9)	23.05	2.56	8.09
	수업(8)	20.44	2.56	6.40
	학교환경(9)	22.39	2.49	7.75

먼저, 통제소재 중 내적통제는 3.02, 외적통제는 2.07로 나타났는데,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내적통제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의 외적통제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하위 측정변인은 학교스트레스(2.89), 자신스트레스(2.45), 가정스트레스(1.92), 대인스트레스(1.83)의 순으로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의 하위 측정변인은 친구적응(3.02), 학교생활적응(2.95), 교사적응(2.56), 수업적응(2.56), 학교환경적응(2.49)의 순으로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중학생의 학교적응 하위 측정변인들과 설명변인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내적통제와 학교적응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에는 상관계수가 .220에서 .370 사이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외적통제와 학교적응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에는 -.200에서 -.141 사이로 5%, 1%,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의 하위 측정변인과 학교적응의 하위 측정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349에서 -.050으로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하위 측정요인 중 '대인스

트레스'는 학교적응의 하위 측정변인인 '학교생활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이며, 그 외에는 모두 5%, 1%,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학교적응은 내적통제와는 정적 상관인, 외적통제 및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적응 관련변인 간 구조모형 적합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변인에 대한 최초의 가설적 구조모형([그림 1])이 수집된 자료에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χ^2 ,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표준적합치(non-normed fit index: NNFI), 비교적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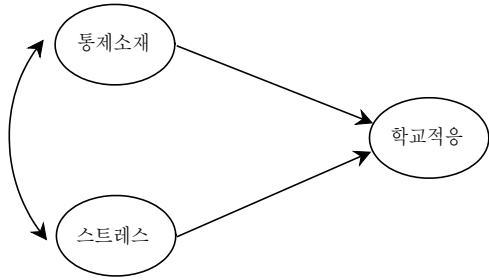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N=331)

측정변인	내적 통제	외적 통제	학교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자신 스트레스	학교 생활적응	학교 친구적응	학교 교사적응	학교 수업적응
외적 통제	-.281***									
학교 스트레스	-.155**	.378***								
가정 스트레스	-.191***	.452***	.447***							
대인관계스트레스	-.026	.383***	.215***	.407***						
자신 스트레스	-.073	.517***	.396***	.454***	.493***					
학교 생활적응	.370***	-.141*	-.247***	-.194***	-.089	-.142*				
학교 친구적응	.337***	-.200***	-.173**	-.193***	-.329***	-.206***	.517***			
학교 교사적응	.231***	-.185**	-.351***	-.201***	-.050	-.179**	.469***	.302***		
학교 수업적응	.328***	-.170**	-.349***	-.219***	-.070	-.222***	.486***	.317***	.657***	
학교 환경적응	.220***	-.144**	-.281***	-.154**	-.160**	-.152**	.600***	.465***	.545***	.535***

* p<.05 **p<.01 ***p<.001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통제소재와 학교적응의 구조분석



[그림 1]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변인의 가설적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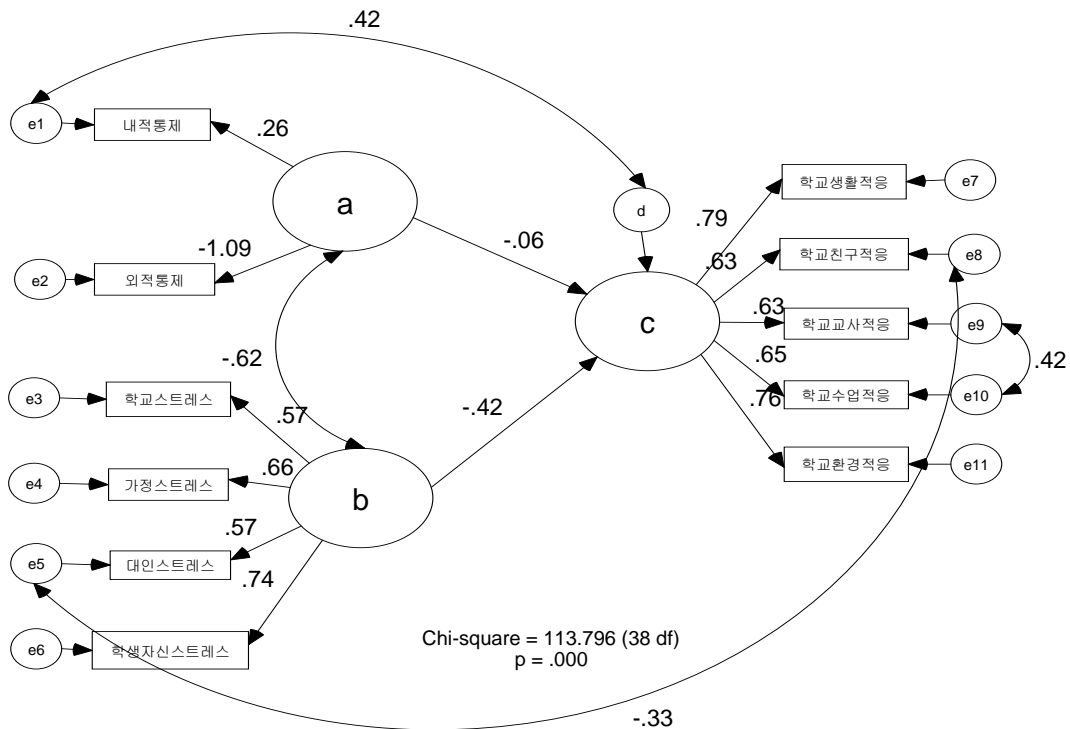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 값이 기각되고, GFI, AGFI, NFI, CFI, RMSEA의 수치도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최초의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AMOS 5.0의 수정지수(M.I)를 참고하여 고려할만한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오차항 e1(내적통제)와 오차항 d(학교적응), 오차항 e5(대인스트레스)와 e8(학교친구적응)을 공분산 관계로 연결하여([그림 2] 참조), 새로운 경로 연결을 통해 확정된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GFI	AGFI	NFI	CFI	RMS EA
값	233.099***	41	.882	.810	.815	.840	.119
기준	p>.05		>.90	>.90	>.90	>.90	<.05

<표 5> 수정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GFI	AGFI	NFI	CFI	RMS EA
값	113.796***	38	.941	.898	.910	.937	.078
기준	p>.05		>.90	>.90	>.90	>.90	<.05



a: 통제소재, b: 스트레스, c: 학교적응

[그림 2] 학교적응 관련변인의 수정된 구조모형(표준화 계수)

일반적으로 GFI, AGFI, NFI, CFI 등의 지수는 .90 이상일 때 좋은 모형으로,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모형으로 그리고 .08 이하일 때는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한다(이순목, 1990).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최초의 가설적 모형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GFI는 .941, NFI는 .910, CFI는 .937, RMSEA는 .078로 나타났다. χ^2 값(113.796, df=38, p<.001)은 표본이 클 경우 모형이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어도 모형과 현실의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 경고신호를 보내므로, 표본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약점이 있다(강병서, 1999). 이 점을 감안해서 χ^2 값 외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3. 변인간 인과관계 및 상대적 효과

최종 확정된 수정모형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6>와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제소재, 스트레

<표 6>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C.R.	P	표준화계수
통제소재 → 학교적응	-.120	.173	-.696	.486	-.055
스트레스 → 학교적응	-.550	.139	-3.960	***	-.418
통제소재 → 내적통제	1.000				.257
통제소재 → 외적통제	-3.671	1.405	-2.613	**	-1.092
스트레스 → 학교스트레스	1.000				.571
스트레스 → 자신스트레스	1.828	.203	9.015	***	.736
스트레스 → 대인스트레스	1.453	.184	7.909	***	.571
스트레스 → 가정스트레스	1.689	.197	8.552	***	.665
학교적응 → 학교생활적응	1.000				.790
학교적응 → 학교친구적응	1.016	.093	10.950	***	.626
학교적응 → 학교교사적응	1.506	.142	10.586	***	.627
학교적응 → 학교수업적응	1.238	.112	11.021	***	.650
학교적응 → 학교환경적응	1.750	.136	12.845	***	.760

p<.01 *p<.001

스, 학교적응과 같은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는 통제소재가 외적통제에 대해 1% 수준에서, 그 외는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는 통제소재에서 학교적응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696(p>.05)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비교해보면, 학교적응에는 통제소재보다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계수는 .30이상이면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데(홍세희, 2004),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에 대한 계수는 통제소재가 내적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며,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는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소재보다는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구조모형을 가설적으로 구성하고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변인들, 즉 학교적응과 통제소재,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결과, 내적 통제와 학교생활적응($r=.37$) 및 친구적응($r=.34$), 학교스트레스와 교사적응($r=-.35$) 및 수업적응($r=-.35$), 그리고 대인스트레스와 친구적응($r=-.33$)의 상관성이 다른 측정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과 관련변인 간의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공분산을 가정한 세 개의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모형을 구성한 결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하여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제소재는 스트레스에 비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상관을 고려해볼 때 통제소재는 스트레스와의 상호관계 하에서는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중학생의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이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들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학교생활적응 및 친구관계적응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결과는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고문정, 2002; 김순덕, 2005; 권일현, 2002)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학교, 가정, 대인관계 및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들에 대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및 친구적응의 상관 그리고 대인스트레스와 친구적응의 상관성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임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들(강영자, 1996; 김길자, 2004;

김수주, 2001; 신현숙·구본용, 2000; 오미향·천성문, 1993; 이경희, 1995; 임규혁, 2001)결과와 유사하며, 친구나 교사에 대한 긍정적 지각 혹은 친구나 교사로부터의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들(유선이, 1999; 황경미, 1998; Asher et al., 1990; Berndt & Ladd, 1989; Goswick & Jones, 1981;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Laible, Carlo, & Raffaelli, 2000)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소재는 스트레스를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본 연구결과는 스트레스와 통제소재 간의 상관을 제시한 박용자(1988), 백양희와 최외선(1997), Cole과 Sapp(1988), Johnson과 Sarason(1978)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급격한 경험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느냐의 여부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시기 청소년들이 학교환경을 편안하게 인식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즉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와 균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는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이 학교나 가정 그리고 대인관계나 자기 자신에 대해 과중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지각하지 않도록 교사를 비롯한 학교환경이나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중학생의 심리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갈등상황에서는 조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학교나 가정은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지원보다는 일방적인 성취에

대한 강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부모나 사회의 지지적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문정, 2002; 이경주, 1997; 임유진, 2001; 전귀연, 1994)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중학생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대처·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이 일련의 교육 혹은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전효경, 2002)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체계적인 훈련과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모형은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통제소재, 스트레스 변인들 간에 일련의 구조를 가질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강병서,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 무역경영사, 1999.
 강영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 방안에 관한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고문정, 부모의 사회적지지 및 청소년의 내외 통제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권일현, 자기효능감 및 내외통제소재와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길자, 중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및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병선, 초등학교 아동의 통제소재와 성역할 정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수주,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순덕,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통제소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용래, "학교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pp.3~37, 2000.
 김춘례,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 성취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춘희,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문은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민하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박광수,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증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명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형과 강도, 순천향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박용자, 청소년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백양희·최외선,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pp.33~48, 1997.
- 변혜중,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서윤경,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리미,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현숙·구분용,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제9권, pp.189-225, 2000.
- 오미향·천성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요인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인간이해, 제15권, pp.63-96, 1993.
- 유선이, 아동의 우정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윤지순, 빈곤가정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경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경희,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순목,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1990.
- 이예승,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옥주,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7(3), pp.77~85, 2003.
- 이훈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임규혁,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분석", 교육문제연구, 14, pp.1-23, 2001.
- 임유진,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임정순,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장호성,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장휘숙,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8.
- 전귀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응용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전효경, 학교적응프로그램이 학교적응 여중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및 학습내적통제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병철, 국민학생의 내외통제 성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은주·손진훈, "학생용 외통제척도 제작연구 - Nowiciki와 Strickland(1973)의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0(2), pp.1~15, 1981.
- 차유림,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한미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한상희, 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성 및 정신 건강과의 관계,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황경미,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육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황미정, 중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Berndt, T. J. & Ladd, G.,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89.
- Cole, T., & Sapp, G., "Stress, locus of control, and achievement of high school seniors", *Psychological Reports*, 63, pp.355~359, 1988.
- Compas B. E.,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987.
- Connell, J. P., Spencer, M. B., & Aber, J. L.,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s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pp.493~506, 1995.
- Goswick, R. A., & Jones, W. H., "Loneliness, self- concept, and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107, pp.237~240, 1981.
- Grolnick, W. S., Kurowski, C. O., & Gurland, S. T., "Family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34, pp.3~14, 1999.
- Harter, S., "Teacher and classmate influences on scholastic motivation, self-esteem, and level of voice in adolescents", In J. Juvonen & K. Wentzel (Eds.),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pp.11~4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Johnson, J. H. & Sarason, I. G., "Lif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moderator variab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2, pp.205~252, 197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pp.1103~1118, 1996.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9, pp.5~59, 2000.
- Nowicki, S. & Strickland, B. R.,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pp.148~154, 1973.
- Wentzel, K. R.,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pp.411~419, 1997.